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국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에 관한 분석*

박 찬 옥 | 서울대학교
홍 지 연 | 서울대학교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2표병립제를 통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각 한 표씩 두 표를 행사하였다. 이 논문은 선거 후 실시한 두 가지 설문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2표병립제에서 일어나는 분할투표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2표병립제 하에서 분할투표란 유권자가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의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선택한 정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008년 총선에서는 전체투표자의 25~35% 수준이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분할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역구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선거에서 친박연대를 선택한 사례였다. 한나라당/친박연대의 분할투표는 전형적인 전략적 분할투표에 속한다. 이들 중 절반은 사표방지심리에 의해, 나머지 절반은 연합보장 의도에 따라 분할투표를 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한편,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는 정책균형 분할투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진보정당에 의해 견제 받지 않는 보수정당의 국회 내 독주를 우려해 분할투표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주제어: 분할투표, 2표병립제, 전략적 투표, 사표방지, 연합보장, 정책균형 분할투표, 제18대 총선

* 필자 중 한 사람(Park 2009) 이 논문에서 사용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를 분석하여 이를 미국 남부정치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여기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연구를 더욱 보완, 발전시켰다. 필자들은 소중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I. 서론

2004년에 실시된 제17대 총선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를 뽑는 한 표,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에 대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되었다. 1인 2표제는 독일연방하원 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혼합비례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는 2표병립제(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MMM)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가 단지 비례대표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의석까지 포함하여 각 정당이 차지하는 총의석수를 결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이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정해진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9-24).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유권자들이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투표(이하 '지역구투표')와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를 연결하여 투표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1인 2표제 아래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나 유권자는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정당과 동일한 정당을 비례대표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일관투표'를 행하거나 아니면 지역구선거에서 뽑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을 비례대표선거에서 선택하는 '분할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2표병립제를 채택한 한국 총선에 대한 분석가들도 혼합비례제가 적용되는 의회선거에서의 분할투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할투표란 용어는 본래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때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를 일관투표,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를 분할투표로 정의한 데서 기인하였다. 그러나 1인 2표제의 의회선거에서 정의되는 분할투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 각기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있어서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긴밀히 연결된 것이며, 특히 독일과 같이 정당체제가 공고화된 나라에서는 정당투표에서의 선택이 지역구투표에서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Jesse 1987, 113). 따라서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 왜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혹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표를 던지게 되는지가 연구대상으로서 관심을

끝게 되었다.

본 논문은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주로 분할투표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분할투표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서술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분할투표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설명을 제시해 줄 것이며, 현재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은 한국의 2표병립제 하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들의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우선, 첫 번째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전인 2008년 3월 16일~18일과 선거 후인 2008년 4월 10일~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가구별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추출되었고,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추출은 지역, 성, 연령별로 할당된 기준수(quota)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1차 조사의 표본수는 1,370명, 2차 조사의 표본수는 1,153명이고 표본유지율은 84.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2.9\%$ 이다. 두 번째 자료는 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4월 9일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해 수집되었다. 표본추출은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비례할당표본추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수는 1,000명이었으며 응답률은 13.9%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2.8\%$ 였다.

II.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제18대 총선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제13대~제18대)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3대에서 16대 총선까지 적용된 선거제도는 지역구 단순다수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렬적으로 결합시킨 제도였다(박찬욱 2005). 16대 총선을 예로 들면 총 273석 중 지역구의석은 227석, 전국구 의석은 46석으로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16.8%를 차지하였다. 유권자들은 지역구의원을 뽑는 1표만 행사하였고 단순다수제에 따라 지역구의원 1인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지역구의원 후보들의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에 전국구의석이 할당되었다. 전국구의석은 지역구

4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2009)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전국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할당되었다.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은 단순할당기준수(simple or Hare quota)에 기초한 최대잔여방식을 적용하였다.

한편, <표 1>에서와 같이,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7대 총선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 총 의석수가 299석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유권자들은 기존의 1표에서 2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즉,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 각각 1표씩 행사하게 된 것이다.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이 전국구의석을 할당받게 되었다(박찬욱 2005). 18대 총선에서도 17대 총선과 동일한 선거제도가 적용되었으나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18.7%에서 18.1%로 감소하였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22.6%라는 큰 격차로 앞서며 압승을 거두었다. 이명박 후보는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08년 4월 9일 제18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표 1>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

역대 국회	유권자당 투표수	선거구 계층	당선결정 방식	선출 정수	선거 구수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비율	봉쇄 조항
제16대	1	지역구	단순다수	1	227	273	16.8	지역구 5석 또는 전국 득표 3% 이상
		전국구	비례대표: 최대잔여- 헤어방식	46	1			
제17대	2	지역구	단순다수	1	243	299	18.7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 득표 3% 이상
		전국구	비례대표: 최대잔여- 헤어방식	56	1			
제18대	2	지역구	단순다수	1	245	299	18.1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 득표 3% 이상
		전국구	비례대표: 최대잔여- 헤어방식	54	1			

역대 한국정당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기간에 도 많은 정당들이 분열과 합당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총선 직전 친박연대가 분당을 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200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이 창당되었다.

중도 혹은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변화를 겪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당명을 통합민주당으로 바꾸었다.¹⁾ 또한 총선 직전,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차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7년 10월에 창당되어 문국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창조한국당 역시 총선에 참가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제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역대선거 중 가장 낮은 46.0%를 기록하며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표 2>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131석, 전국구 22석으로 전체 299석 중 153석(51.2%)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득표율 37.5%를 기록하였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대표 15석으로 총 81석(27.1%)을 차지하였고 정당투표에서는 25.2%를 득표하였다.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4석을 확보했으며 정당투표에서는 6.8%의 득표율을 얻었다. 정당투표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은 친박연대보다 낮은

<표 2> 제18대 총선 선거 결과

정당	비례대표선거 전국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정당별 총 의석수	정당별 의석률
통합민주당	25.2	66	15	81	27.1
한나라당	37.5	131	22	153	51.2
자유선진당	6.8	14	4	18	6.0
민주노동당	5.7	2	3	5	1.7
창조한국당	3.8	1	2	3	1.0
친박연대	13.2	6	8	14	4.7
기타 군소정당(9개)	7.9	0	0	0	0
무소속	0	25	0	25	8.4
총계	100.1	245	54	299	100.1

출처 : <http://www.nec.go.kr>

1) 2008년 7월 이후, 통합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충청권에서의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구선거에서 선전하여 총 의석에서는 친박연대를 앞질렀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에 전국적으로 5.7%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3석을 추가하여 총 5석을 확보하였다. 창조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3.8%를 득표하여 비례대표 2석, 지역구 의석은 1석만을 얻어 영향력과 인지도 제고에 실패하였다. 진보신당과 기타 8개의 군소정당들은 1석도 얻지 못했다. 끝으로 25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지역구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들 중 대략 절반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의 의원들과 친박근혜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연합했을 경우,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18대 국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²⁾

III. 제18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 행태: 누가, 어떻게?

1. 분할투표유권자의 비율

18대 총선에서 분할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EAI 자료와 KSDC 자료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표 3-1>, <표 3-2>와 같다. 굵은 글자로 표시된 것은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의 후보를 지역구투표에서도 선택한 일관투표를 의미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당투표와 지역구투표에서 각각 기타정당에 투표한 사례도 일관투표로 간주하였다. EAI 자료에 따르면 895명의 투표자 중 36.2%에 해당하는 324명이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SDC 자료는 604명의 투표자 중 27.3%에 해당하는 165명의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했음을 보여준다. 17대 총선 후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2)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7개월 후인 2008년 12월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분포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다른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으로 20여 석이 추가되어 전체 의석의 58.1%인 172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82석(27.7%), 자유선진당 18석(6.1%), 친박연대 8석(2.7%), 민주노동당 5석(1.7%), 창조한국당 3석(1.0%), 무소속 8석(2.7%), 그리고 나머지 3석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표 3-1〉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EAI 자료)

(% , 사례수)

지역구 투표	정당투표								합계
	통합 민주당	한나라 당	민주 노동당	자유 선진당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친박 연대	기타 정당	
통합 민주당	19.8 177	2.6 23	1.3 12	1.3 12	2.7 24	2.5 22	.9 8	.8 7	31.8 285
한나라당	2.9 26	34.3 307	1.3 12	1.5 13	1.1 10	1.2 11	7.5 67	1.2 11	51.0 457
민주 노동당	.2 2	.1 1	2.6 23	.1 1	.2 2	.3 3	.2 2	0 0	3.8 34
자유 선진당	.3 3	1.0 9	0 0	2.3 21	.3 3	.1 1	.6 5	.1 1	4.8 43
창조 한국당	.2 2	0 0	.1 1	0 0	.3 3	.1 1	.1 1	0 0	.9 8
진보 신당	.4 4	.1 1	0 0	0 0	.2 2	.8 7	.1 1	0 0	1.7 15
친박 연대	.7 6	.8 7	.2 2	.2 2	.2 2	0 0	3.5 31	0 0	5.6 50
기타 정당	.1 1	0 0	0 0	0 0	0 0	0 0	0 0	.2 2	.3 3
합계	24.7 221	38.9 348	5.6 50	5.5 49	5.1 46	5.0 45	12.8 115	2.3 21	100.0 895

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 무효표, 모름, 그리고 지역구투표에서 무소속은 분석에서 제외; 굵은 글씨체는 일관투표를 가리킴.

기획한 조사 자료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대 총선에서 분할투표의 비율은 20~2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박찬욱 2005). 〈표 3-1〉과 〈표 3-2〉에 따르면 EAI 자료와 KSDC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자료 간에 분할투표의 비율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7대 총선에 비하면 18대 총선에서 분할투표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17대 총선에서 기타정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수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5개였던 반면,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표 3-2〉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KSDC 자료)

(%, 사례수)

지역구 투표	정당투표								합계
	통합 민주당	한나라 당	민주 노동당	자유 선진당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친박 연대	기타 정당	
통합 민주당	18.4 111	1.7 10	2.0 12	.3 2	1.8 11	1.2 7	.5 3	.2 1	26.0 157
한나라당	.7 4	38.4 232	1.0 6	1.3 8	2.2 13	.2 1	4.6 28	.3 2	48.7 294
민주 노동당	1.2 7	.3 2	3.6 22	.3 2	.5 3	.3 2	0 0	0 0	6.3 38
자유 선진당	0 0	.7 4	.5 3	3.6 22	.5 3	.2 1	.2 1	0 0	5.6 34
창조 한국당	.2 1	.2 1	0 0	0 0	1.7 10	0 0	0 0	0 0	2.0 12
진보 신당	0 0	0 0	0 0	0 0	0 0	1.0 6	0 0	0 0	1.0 6
친박 연대	.2 1	1.3 8	0 0	.2 1	0 0	.2 1	5.3 32	0 0	7.1 43
기타 정당	.5 3	.3 2	.2 1	.7 4	.5 3	0 0	.5 3	.7 4	3.3 20
합계	21.0 127	42.9 259	7.3 44	6.5 39	7.1 43	3.0 18	11.1 67	1.2 7	100.0 604

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 무효표, 모름은 제외; 굵은 글씨체는 일관투표를 가리킴.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대의 7개로 증가한만큼 정당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2.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분할투표

본 논문의 주목적은 앞서 언급했듯 어떤 성향의 유권자들이 주로 분할투표를 하는지 밝히고, 어떤 유형의 분할투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17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연구는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 직업과 같은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분할투표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있으며, 그 결과 유권자들의 연령과 분할투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박찬욱 2005). 분석 결과 20대의 연령층에서 분할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4.8%)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분할투표의

〈표 4〉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분할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EAI 자료	KSDC 자료
	계수 B(표준오차)	계수 B(표준오차)
성별(여자 기준)	.173(.178)	.232(.194)
연령(60대 이상 기준)		
20대	.515(.284)	.620(.376)*
30대	.221(.232)	.427(.342)
40대	.568(.215)***	.248(.334)
50대	.178(.225)	.017(.333)
학력(고졸 미만 기준)		
고졸	-.073(.280)	-.359(.303)
대재 이상	.036(.156)	-.035(.318)
직업유형(무직/기타 기준)		
화이트칼라	.022(.318)	.166(.271)
블루칼라	-.075(.347)	-.096(.401)
자영업	.217(.317)	-.090(.265)
주부	.226(.345)	(해당 없음)
학생	-.133(.453)	(해당 없음)
농업	(해당 없음)	-.449(.673)
상수	-.874(.343)	-1.224(.266)
콕스·스넬 결정계수	.014	.024
나겔커크 결정계수	.018	.034
-2로그우도	1290.186	693.864
카이제곱	13.146	14.501
예측적중률	59.9	72.7
사례수	964	604

주: *** $p < 0.01$, ** $p < 0.05$, * $p < 0.1$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5.7%). 본 논문 역시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분할투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AI 자료와 KSDC 자료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자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 변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17대 총선과 유사하게 18대 총선에서도 20대 연령층에서는 분할투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EAI 자료: 43.4%, KSDC 자료: 37.1%),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EAI 자료: 34.2%, KSDC 자료: 22.1%). 단, EAI 자료의 경우 40대 연령층에서 분할투표의 비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다르다. <표 4>의 로지스틱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이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AI 자료의 경우 40대일수록 분할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SDC 자료는 20대일수록 분할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변수를 제외한 기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은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로지스틱 모델 자체의 설명력도 두 자료 모두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권자의 정당선호와 분할투표

1인 2표제에서 분할투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정당선호가 분할투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줄곧 제기해왔다(Gschwend 2003; Karp and others 2002; McAllister and White 2000). 독일과 뉴질랜드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가 낮을수록 분할투표의 확률은 높아진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17대 총선에서 정당선호도와 분할투표의 관계는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분할투표의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분할투표의 확률은 감소하였다(박찬욱 2005).

<표 5>는 18대 총선에서 투표자들의 정당선호 분포와 그에 따른 분할투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이며(EAI 자료: 46.6%, KSDC 자료: 38.8%), 이는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EAI 자료: 19.5%, KSDC 자료: 17.7%)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친박연대는 전체 투표자 중 8% 정도에 해당하는 투표자들

〈표 5〉 선호정당별 분할투표 비율

(% , 사례수)

선호정당	EAI 자료			KSDC 자료		
	전체 투표 자 중 차지 하는 백분 율(사례수)	투표행태		전체 투표 자 중 차지 하는 백분 율(사례수)	투표행태	
		일관투표	분할투표		일관투표	분할투표
합계	100.0 (964)	63.8	36.2	100.0(644)	72.7	27.3
통합민주당	19.5 (188)	73.4	26.6	17.7 (114)	86.1	13.9
한나라당	46.6 (449)	69.3	30.7	38.8 (250)	82.1	17.9
민주노동당	4.1 (40)	45.0	55.0	6.7 (43)	57.1	41.9
자유선진당	4.1 (40)	57.5	42.5	5.1 (33)	59.4	40.6
창조한국당	5.0 (48)	18.8	81.3	7.9 (51)	40.9	59.1
진보신당	3.7 (36)	19.4	80.6	2.3 (15)	33.3	66.7
친박연대	8.3 (80)	31.3	68.8	8.2 (53)	64.2	35.8
기타정당	.3 (3)	0	100.0	.3 (2)	50.0	50.0
없음	8.2 (79)	49.4	50.6	9.3 (60)	71.7	28.3
모름/무응답	.1 (1)	100.0	0	3.6 (23)	66.7	33.3

의 선호를 얻었는데, 이 수치는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투표자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는 한나라당에 과도하게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호정당별 분할투표 행태를 살펴보면, 양대정당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투표자의 분할투표 비율이 전체 투표자의 평균 분할투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군소정당 선호자들의 분할투표 비율은 평균 분할투표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강제적 분할투표'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실사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였다고 해도 사표방지심리에 의해 전략적으로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 분할투표의 유형

다음으로 유권자의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의 선택에 있어 이루어지는 정당간 조합에 따라 분할투표의 유형을 나누어 유권자들이 주로 어떤 유형의 분할투표를 하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정당간 조합형태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각 정당들을 규모와 이념성향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규모를 기준으로 각 정당들은 대정당 혹은 군소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정당에 속하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군소정당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총선 직전 각 정당의 의석분포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총선 이틀 전인 2008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17대 국회의 총 의석수는 292석이었으며, 이 중 통합민주당이 136석(46.6%), 한나라당이 112석(38.3%), 자유선진당이 9석(3.1%), 민주노동당이 6석(2.1%), 친박연대가 3석(1.0%), 창조한국당이 1석(0.3%) 무소속이 25석(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각각 대정당 혹은 군소정당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정당의 승산가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선거경쟁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총선 3주 전에 실시된 EAI의 패널 제1차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8%와 18.3%가 각각 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33.9%의 응답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나머지 응답자들이 각각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혹은 진보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어떤 정당도 2%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지지의사를 받지 못했다. 조사 당시, 친박연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현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의 실제 경쟁구도 역시 위의 조사에서 보여진 유권자들의 응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총 245개의 선거구 중 226곳에서 1위 혹은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156곳에서 1위 혹은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무소속의 경우는 63곳에서 1위 혹은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10% 이상의 선거구에서 1위 혹은 2위의 득표율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정당투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EAI의 선거 전 패널조사 결과, 41.8%와 20.6%의 응답자가 각각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3.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기타

정당들에 대한 투표의사는 5%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표 2>는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선택이 조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분당한 친박연대가 정당투표에서 13.2%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정당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각 정당들을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진보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보수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속한다.

본 논문은 EAI 자료와 KSDC 자료를 사용하여 규모와 이념성향에 따라 각 정당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서 어떤 조합을 보이는지에 따라 분할투표를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1>, <표 6-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당규모에 따른 분할투표의 유형(지역구투표/정당투표)엔 대정당/대정당, 대정당/군소정당, 군소정당/대정당, 군소정당/군소정당이 포함된다. 18대 총선에서 분할투표자 중 과반수(EAI 자료: 64.5%, KSDC 자료: 57%)가 이 네 가지 유형 중 대정당/군소정당에 해당하는 분할투표를 하였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표를 나눠주는 대정당/대정당 유형의 분할투표는 전체 분할투표자의 15.1%(EAI 자료), 8.5%(KSDC 자료)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정당/군소정당 그리고 대정당/대정당 유형이 거의 분할투표 전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단순다수제의 지역구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의 승산이 적은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선거에서는 대부분 대정당의 후보에 투표하는 형태의 분할투표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규모에 더해 정당의 이념성향까지 포함시키면 분할투표를 1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14개의 유형 중 전체 분할투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정당(보수)/군소정당(보수)에 해당하는 분할투표(EAI 자료: 24.7%, KSDC 자료: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하는 정당조합 중 한나라당/친박연대의 분할투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AI 자료: 21.8%, KSDC 자료: 17.0%). 이러한 한나라당/친박연대의 분할투표는 18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6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친박연대가 비례대표선거의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의석을 8석 확보하며 3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표 6-1) 분할투표의 유형(지역구투표/정당투표) (EAI 자료)

유형	정당의 규모		정당규모와 이념성향		정당조합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하위유형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투표행태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대정당/ 대정당	15.1 (49)	대정당(진보)/ 대정당(보수)	7.1 (23)	통합민주당/한나라당	7.1 (23)	
		대정당(보수)/ 대정당(진보)	8.0 (26)	한나라당/통합민주당	8.0 (26)	
대정당/ 군소정당	64.5 (209) ^a	대정당(진보)/ 군소정당(진보)	17.9 (58)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7.4 (24)	
				통합민주당/진보신당	6.8 (22)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	3.7 (12)	
		대정당(보수)/ 군소정당(보수)	24.7 (80)	한나라당/친박연대	20.7 (67)	
				한나라당/자유선진당	4.0 (13)	
		대정당(진보)/ 군소정당(보수)	6.2 (20)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3.7 (12)	
				통합민주당/친박연대	2.5 (8)	
군소정당/ 대정당	11.1 (36) ^b	군소정당(진보)/ 대정당(진보)	2.5 (8)	한나라당/민주노동당	3.7 (12)	
				한나라당/창조한국당	3.1 (10)	
				한나라당/진보신당	3.4 (11)	
		군소정당(보수)/ 대정당(보수)	4.9 (16)	민주노동당/통합민주당	.6 (2)	
				창조한국당/통합민주당	.6 (2)	
				진보신당/통합민주당	1.2 (4)	
		군소정당(진보)/ 대정당(보수)	6.2 (20)	자유선진당/한나라당	2.8 (9)	
군소정당(보수)/ 대정당(보수)	.6 (2)	친박연대/한나라당	2.2 (7)			
군소정당/ 군소정당	9.3 (30) ^c	군소정당(보수)/ 대정당(보수)	2.8 (9)	민주노동당/한나라당	.3 (1)	
				진보신당/한나라당	.3 (1)	
		군소정당(보수)/ 대정당(진보)	2.8 (9)	자유선진당/통합민주당	.9 (3)	
				친박연대/통합민주당	1.9 (6)	
		군소정당(진보)/ 군소정당(진보)	2.8 (9)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6 (2)	
				민주노동당/진보신당	.9 (3)	
				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3 (1)	
				창조한국당/진보신당	.3 (1)	
				진보신당/창조한국당	.6 (2)	
		군소정당(보수)/ 군소정당(보수)	2.2 (7)	자유선진당/친박연대	1.5 (5)	
군소정당(진보)/ 군소정당(보수)	1.5 (5)	친박연대/자유선진당	.6 (2)			
군소정당(보수)/ 군소정당(진보)	2.5 (8)	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3 (1)			
		민주노동당/친박연대	.6 (2)			
		창조한국당/친박연대	.3 (1)			
		진보신당/친박연대	.3 (1)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9 (3)			
자유선진당/진보신당	.3 (1)					
친박연대/민주노동당	.6 (2)					
친박연대/창조한국당	.6 (2)					
합계	100(324)	합계	100.1(324) ^d	합계	99.8(324) ^d	

주: ^a통합민주당/기타정당(2.2%, 사례수=7), 한나라당/기타정당(3.4%, 사례수=11) 포함; ^b기타정당/통합민주당(0.3%, 사례수=1); ^c자유선진당/기타정당(0.3%, 사례수=1); ^d앞서 언급한 기타정당들(6.2%, 사례수=20) 포함; 전체 분할투표자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조합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

〈표 6-2〉 분할투표의 유형(지역구투표/정당투표) (KSDC 자료)

정당의 규모		정당규모와 이념성향		정당조합	
유형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하위유형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투표행태	전체 분할투표자 중 백분율(사례수)
대정당/ 대정당	8.5 (14)	대정당(진보)/ 대정당(보수)	6.1 (10)	통합민주당/한나라당	6.1 (10)
		대정당(보수)/ 대정당(진보)	2.4 (4)	한나라당/통합민주당	2.4 (4)
대정당/ 군소정당	57.0 (94) ^a	대정당(진보)/ 군소정당(진보)	18.2 (30)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6.7 (11)
				통합민주당/진보신당	4.2 (7)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	7.3 (12)
		대정당(보수)/ 군소정당(보수)	21.8 (36)	한나라당/친박연대	17.0 (28)
				한나라당/자유선진당	4.8 (8)
		대정당(진보)/ 군소정당(보수)	3.0 (5)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1.2 (2)
				통합민주당/친박연대	1.8 (3)
		대정당(보수)/ 군소정당(진보)	12.1 (20)	한나라당/민주노동당	3.6 (6)
				한나라당/창조한국당	7.9 (13)
				한나라당/진보신당	.6 (1)
군소정당/ 대정당	17.6 (29) ^b	군소정당(진보)/ 대정당(진보)	4.8 (8)	민주노동당/통합민주당	4.2 (7)
				창조한국당/통합민주당	.6 (1)
		군소정당(보수)/ 대정당(보수)	7.3 (12)	자유선진당/한나라당	2.4 (4)
				친박연대/한나라당	4.8 (8)
		군소정당(진보)/ 대정당(보수)	1.8 (3)	민주노동당/한나라당	1.2 (2)
				창조한국당/한나라당	.6 (1)
		군소정당(보수)/ 대정당(진보)	.6 (1)	친박연대/통합민주당	.6 (1)
군소정당/ 군소정당	17.0 (28) ^c	군소정당(진보)/ 군소정당(진보)	3.0 (5)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1.8 (3)
				민주노동당/진보신당	1.2 (2)
		군소정당(보수)/ 군소정당(보수)	1.2 (2)	자유선진당/친박연대	.6 (1)
				친박연대/자유선진당	.6 (1)
		군소정당(진보)/ 군소정당(보수)	1.2 (2)	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1.2 (2)
		군소정당(보수)/ 군소정당(진보)	4.8 (8)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1.8 (3)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1.8 (3)
				자유선진당/진보신당	.6 (1)
				친박연대/진보신당	.6 (1)
합계	100.1 (165)	합계	99.8 (165) ^d	합계	99.7(165) ^d

주: ^a통합민주당/기타정당(4.2%, 사례수=7), 한나라당/기타정당(1.2%, 사례수=2) 포함; ^b기타정당/통합민주당(1.8%, 사례수=3), 기타정당/한나라당(1.2%, 사례수=2) 포함; ^c기타정당/민주노동당(0.6%, 사례수=1), 기타정당/창조한국당(1.8%, 사례수=3), 기타정당/자유선진당(2.4%, 사례수=4), 기타정당/친박연대(1.8%, 사례수=3) 포함; ^d앞서 언급한 기타정당들(11.5%, 사례수=19) 포함; 전체 분할투표자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조합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

는 <표 3-1>, <표 3-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친박연대의 분할투표는 친박연대가 정당투표에서 얻은 총 득표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EAI 자료-58.3%, KSDC 자료-41.8%).

14개의 분할투표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정당(진보)/군소정당(진보)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두 자료에서 각각 전체 분할투표의 17.9%(EAI 자료), 18.2%(KSDC 자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유형에 속하는 정당조합에는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통합민주당/진보신당 그리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정당/군소정당의 분할투표 유형에서 대정당(진보)/군소정당(진보)과 대정당(보수)/군소정당(보수)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료에서 각각 66.0%(EAI 자료), 70.2%(KSDC 자료)로 다른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에서 대정당, 정당투표에서 군소정당에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 이념성향의 유사성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제18대 총선에서 분할투표 행태: 왜?

다음으로, 한국유권자들이 18대 총선에서 왜 분할투표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분할투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당 선호에 따라 일관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왜 다른 정당의 후보 또는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지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 중 어떤 쪽에서 더 자신의 정당선호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지 즉, 순수투표(sincere voting) 행태가 어떤 쪽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은 투표자의 정당선호와 지역구투표 그리고 투표자의 정당선호와 정당투표의 관계를 카이자승 검정을 통해 분석해 본 것이다. 분석 결과는 투표자의 정당선호와 지역구투표 혹은 정당투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구투표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7〉 선호정당과 지역구투표/정당투표

변수	EAI 자료						KSDC 자료					
	사례수	카이자승			크레이머 브이		사례수	카이자승			크레이머 브이	
		값	자유도	유의수준	값	유의수준		값	자유도	유의수준	값	유의수준
지역구 투표	969	987.2	72	< .01	.36	< .01	621	1022.7	63	< .001	.49	< .01
정당 투표	972	3053.9	63	< .01	.67	< .01	612	1851.2	63	< .001	.66	< .01

주: 투표선택의 변수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타 정당으로 구성; 단, EAI자료의 경우는 지역구투표에서 무소속 항목 포함; 선호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타정당, 선호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으로 구성.

한편, 〈표 8〉은 위와 같은 결과를 전제로 투표자들의 선호정당에 따라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에서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놓은 것이다. 우선, 지역구투표의 경우를 보면 통합민주당 선호자의 경우, 두 자료에서 각각 77.7%(EAI 자료), 85.7%(KSDC 자료)가 순수투표를 했으며, 한나라당 선호자는 각각 79.8%(EAI 자료), 87.4%(KSDC 자료)가 순수투표를 했다. 반면, 군소정당 선호자의 경우 지역구투표에서 순수투표를 한 비율은 대개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지역구선거에서 군소정당들의 승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대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이탈행위를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커에 따르면, 전략적투표(strategic voting)란 "유권자가 사회적 집단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선호순위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iker 1982, 297). 따라서 1인 2표제 하에서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투표에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어 자신이 싫어하는 대정당의 후보가 이기는 결과를 막기 위해 다른 대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투표에서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을 그대로 선택하는 '전략적 분할투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투표는 위의 〈표 6〉에서 대정당/군소정당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군소정당 선호자들은 지역구투표에서 순수투표를 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표 5〉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할투표를 하는

〈표 8〉 순수투표의 비율

선호정당	EAI 자료		KSDC 자료	
	지역구투표 (해당정당 선호 자 중 그 정당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 수/ 해당 정당 선호자 수)	정당투표 (해당정당 선호 자 중 그 정당을 선택한 투표자 수/ 해당 정당 선호자 수)	지역구투표 (해당정당 선호 자 중 그 정당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 수/ 해당 정당 선호자 수)	정당투표 (해당정당 선호 자 중 그 정당을 선택한 투표자 수 / 해당정당 선호 자 수)
통합민주당	77.7 (146/188)	90.5 (171/189)	85.7 (96/112)	84.5 (93/110)
한나라당	79.8 (360/451)	76.2 (343/450)	87.4 (216/247)	82.2 (199/242)
민주노동당	37.5 (15/40)	85.7 (36/42)	47.6 (20/42)	61.9 (26/42)
자유선진당	47.5 (19/40)	80.0 (32/40)	59.4 (19/32)	81.3 (26/32)
창조한국당	8.3 (4/48)	75.5 (37/49)	20.0 (9/45)	70.8 (34/48)
진보신당	13.9 (5/36)	83.3 (30/36)	26.7 (4/15)	93.3 (14/15)
친박연대	26.3 (21/80)	87.5 (70/80)	45.3 (24/53)	71.7 (38/53)

경향이 대정당 선호자들에 비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투표의 경우를 보면, 지역구투표와 달리 거의 모든 정당의 선호자들이 70~90% 수준으로 순수투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다수제에 의한 당선결정이 아닌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결정을 하는 정당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심리가 완화되어 군소정당 선호자들의 이탈행위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대정당 선호자 중 한나라당 선호자의 경우, 두 자료 모두에서 지역구투표보다 정당투표에서의 순수투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나라당 선호자 중 상당수가 정당투표에서 친박연대를 선택한 탓으로 보인다. 대정당 선호자의 분할투표는 사표방지심리와 달리, 그슈벤트(Gschwend 2007)가 지적한 '연합보장'을 위한 전략적 분할투표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슈벤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원내진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들 간의 연합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만약 그 연합구상에 속해 있는 어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의석 할당의 진입장벽(threshold)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경우, 대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투표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대정당 후보를 선택하되, 정당투표에서는 군소정당을 선택하는 전략적 분할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호자 중 일부는 선거 후, 입법과정에

서 한나라당과 연합세력을 구축할 친박연대가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얻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친박연대에 투표하는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대정당/군소정당의 분할투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바, 첫째는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전략적 분할투표이다. 이는 군소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에서 승산 가능성이 큰 대정당의 후보에 전략적 투표를 하고 정당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수투표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합보장 의도에 따른 분할투표로, 이는 대정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정당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필요한 진입장벽(threshold)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서 전략적으로 군소정당을 선택하고 지역구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대로 순수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이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 형태인 대정당/군소정당, 대정당/대정당의 두 분할투표 유형을 대표적 정당조합을 예로 들어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의 예로는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

〈표 6-1〉, 〈표 6-2〉에 따르면,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는 대정당(보수)/군소정당(보수)의 유형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적 투표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친박연대를 선호하는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분할투표이거나 혹은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입법과정에서의 연합보장을 위해 하는 분할투표인 것이다.

〈표 9-1〉과 〈표 9-2〉는 전체 분할투표자와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를 나타낸 〈표 5〉를 상기시켜보면, 통합민주당 선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 자료에서 각각 19.5%(EAI 자료), 15.4%(KSDC 자료)였고, 한나라당 선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6%(EAI 자료), 35.2%(KSDC 자료)였다. 그러나 전체 분할투표자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7%와 35.1%(EAI 자료) 그리고 9.1%와 26.1%(KSDC 자료)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군소정당 선

〈표 9-1〉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EAI 자료)

선호정당	전체 분할투표자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통합민주당	12.7	50	1.5	1
한나라당	35.1	138	49.3	33
민주노동당	5.6	22	0	0
자유선진당	4.3	17	1.5	1
창조한국당	9.9	39	1.5	1
진보신당	7.4	29	0	0
친박연대	14.0	55	43.3	29
기타정당	.8	3	0	0
지지정당 없음	10.2	40	3.0	2
모름/무응답	0	0	0	0
합계	100.0	393	100.1	67

〈표 9-2〉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KSDC 자료)

선호정당	전체 분할투표자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통합민주당	9.1	15	0	0
한나라당	26.1	43	39.3	11
민주노동당	10.9	18	0	0
자유선진당	7.9	13	3.6	1
창조한국당	15.8	26	0	0
진보신당	6.1	10	0	0
친박연대	11.5	19	42.9	12
기타정당	.6	1	3.6	1
지지정당 없음	9.1	15	10.7	3
모름/무응답	3.0	5	0	0
합계	100.0	165	100.0	28

호자들은 전체 투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전체 분할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원인은 군소정당 선호자의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분할투표가 대정당 선호자의 연합보장 의도에 따른 분할투표보다 그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이다(Gschwend 2007). 연합보장을 위해 분할투표를 하는 대정당 선호자의 경우, 사실상 자신의 표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인 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줄이는 결과를 낳으므로 그 비용이 크다. 그러나 사표방지심리를 위해 분할투표를 하는 군소정당 선호자의 경우엔 어차피 자신의 표가 선거 결과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다. 따라서 전체 유권자에 비해 전체 분할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에서 대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군소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전체 분할투표자와 달리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경우 선호정당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친박연대를 가장 선호하는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는 지역구선거에서 친박연대의 승산가능성이 낮아 사표방지심리에 의해 전략적 분할투표를 했거나 지역구선거에서 친박연대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강제적 분할투표를 한 경우이다. 친박연대는 총선 2주 전인 2008년 3월 중순 갑작스레 창당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구선거에서 승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45개의 지역구 중 50개의 지역구에서만 후보를 출마시켰다. EAI 패널조사 자료 중 친박연대가 결성되기 전에 실시한 1차 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 9-1>에 나타난 친박연대를 가장 선호하는 29명의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 중 48.4%는 지역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고, 41.4%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응답했으며, 10.3%는 통합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일자료에 따른 1370명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39.8%가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33.9%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18.3%가 통합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유권자는 기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친박연대를 가장 선호하는 29명의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들은 전체 유권자에 비해 한나라당을 더 선호하고 통합민주당을 덜 선호하며, 따라서 이들은 사표방지심리에 의해 한나라당을 그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는 연합형성의 도에 따른 전략적 분할투표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연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체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연합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화 이후, 18대 총선 전까지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단일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유권자들이 연합형성 의도에 따라 분할투표를 할 유인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만을 대상으로 각 정당에 대한 선호 정도를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 대한 선호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싫음의 '0'에서 매우 좋음의 '10'까지 분류된 11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AI 자료의 경우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33명의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한나라당 선호도는 평균 7.5였으며 친박연대 선호도는 평균 6.8이었다. 다른 정당들은 평균 5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KSDC의 자료에 의하면 11명의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들의 한나라당 선호도는 평균 7.8, 친박연대 선호도는 평균 6.7로 EAI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자료에서 역시 이들의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는 평균 5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한편, 이들의 이념성향은 11점 척도(0은 매우 진보, 10은 매우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EAI 자료) 혹은 6.3(KSDC 자료)으로 보수적인 편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나라당이 원내진출 시 강력한 보수연합을 구성하여 과반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서 자신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친박연대에 투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

다음으로 <표 10-1>과 <표 10-2>는 대정당/대정당 분할투표에 속하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의 선호정당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AI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분할투표자 중 한나라당 선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인 반면,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중 한나라당 선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2.6%에 달한다. KSDC 자료에서도 한나라당 선호자는 전체 분할투표자의 26.1%를 차지하는 반면,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중에서는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은 정당투표에서는 순수투표를 했으나 지역구투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의 각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해 보면, 이들의 정당선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정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념성향은 중도 혹은 온건 보수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EAI 자료의 분석결과 이들의 한나라당

〈표 10-1〉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의 선호정당 분포(EAI 자료)

선호정당	전체 분할투표자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통합민주당	12.7	50	4.3	1
한나라당	35.1	138	82.6	19
민주노동당	5.6	22	0	0
자유선진당	4.3	17	0	0
창조한국당	9.9	39	0	0
진보신당	7.4	29	0	0
친박연대	14.0	55	0	0
기타정당	.8	3	0	0
지지정당 없음	10.2	40	13.0	3
모름/무응답	0	0	0	0
합계	100.0	393	99.9	23

〈표 10-2〉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의 선호정당 분포(KSDC 자료)

선호정당	전체 분할투표자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통합민주당	9.1	15	20.0	2
한나라당	26.1	43	40.0	4
민주노동당	10.9	18	0	0
자유선진당	7.9	13	0	0
창조한국당	15.8	26	0	0
진보신당	6.1	10	0	0
친박연대	11.5	19	0	0
기타정당	.6	1	0	0
지지정당 없음	9.1	15	30.0	3
모름/무응답	3.0	5	10.0	1
합계	100.0	165	100.0	10

선호도는 평균 7.6, 통합민주당 선호도는 평균 5.1인 반면,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5를 넘지 못했다. KSDC 자료 분석결과 역시 이들의 한나라당 선호도가 평균 6.0, 통합민주당 선호도가 평균 5.0인 반면 기타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5를

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이념성향은 두 자료에서 각각 5.7(EAI 자료), 5.5(KSDC 자료)로 나타나 중도 혹은 온건 보수임을 보였다.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의 정당선호가 이 두 정당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이념성향 역시 중도 혹은 온건 보수에 속함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은 통합민주당 후보 자체에 대한 선호보다 그들의 온건한 정당선호 및 이념성향에 기반해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진보정당들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극단적 보수 의회가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균형 분할투표를 한 것이다.³⁾

정책균형 분할투표는 원래 피오리나(1996)가 미국의 분점정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대정당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놓인 온건한 성향의 유권자들은 극단적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의 정책이 탄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투표는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분점정부를 낳게 된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경우엔 18대 국회가 극단적 보수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논문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진 2표병립제 하의 국회총선에서 두 가지 선거 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를 분석하

3) 필자들은 한나라당/통합민주당 분할투표자의 정당선호와 이념성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들 분할투표자는 통합민주당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다른 진보성향의 군소정당들보다 한나라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의 정당선호 역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대 정당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념성향도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와 같이 온건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통계수치와 설명은 생략하나, 한나라당/통합민주당 분할투표자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와 유사한 정당선호 및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분할투표 역시 '정책균형' 의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었다. 두 자료를 통해 18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자의 25~35% 정도가 분할투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17대 총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분할투표 여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연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이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AI 자료에서는 40대일수록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SDC 자료에서는 20대일수록 분할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선호 정당과 관련해서는 군소정당 선호자가 대정당 선호자보다 분할투표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규모에 따라 분할투표를 유형화했을 때, 절반 이상의 분할투표자가 지역구투표에서 대정당, 정당투표에서 군소정당을 선택하는 분할투표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구투표에서 한나라당, 정당투표에서 친박연대를 선택한 분할투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분할투표는 지역구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친박연대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제3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구투표에서 대정당, 정당투표에서 군소정당을 선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정당끼리 조합을 형성해 분할투표를 하였다.

한편, 대정당(지역구투표)/군소정당(정당투표)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는 전형적인 전략적 투표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나라당/친박연대 분할투표자의 절반은 친박연대를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로서 정당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수투표를 하되, 지역구투표에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승산 가능성이 큰 한나라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한나라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로서 지역구투표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순수투표를 하되, 한나라당과 유사한 이념성향을 지닌 친박연대가 비례대표의석을 배분 받아 보수연합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서는 친박연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대정당/대정당 유형의 분할투표에 속하는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의 경우 대부분이 통합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당투표에서는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순수투표를 하되, 지역구투표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이다. 그런데 통합민주당/한나라당 분할투표자들의 정당선호도를 분석해 본 결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

한 선호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념성향 역시 중도 혹은 온건보수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가 극단적 보수성향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심리로 정책균형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투고일 2008년 11월 3일

심사일 2008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5일

참고문헌

- 박찬욱. 2005.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푸른길.
- Benoit, Kenneth, Daniela Giannetti, and Michael Laver. 2000. "Strategic Voting in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Italian Case." Presented a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U.S.A.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se, E. 1988. "Split-Vot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 Analysis of the Federal Elections from 1953 to 1987." *Electoral Studies* 7, No. 2. 109-24.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New York: Wiley.
- Farrell, David M., 1997. *Comparing Electoral Systems*. London: Prentice Hall.
- Fiorina, Morris. 1996. *Divided Government*, 2nd ed. Boston: Allyn & Bacon.
- Gschwend Thomas. 2007. "Ticket Splitting and Strategic Voting under Mixed Electoral Rules: Evidence from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 No. 1. 1-23.
- Gschwend, Thomas, and Ron Johnston, and Charles Pattie. 2003. "Split-Ticket Patterns in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ion Systems: Estimates and Analyses of Their Spatial Variation at the German Federal Election, 1998."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No. 1. 109-127.
- Hirano, Hiroshi. 2004. "Split-ticket Voting under the Mixed Electoral System in Japan." The Japanese Election Studies Association.
- Jesse, Eckhard. 1988. "Split-Vot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 Analysis of Federal Elections from 1953 to 1987." *Electoral Studies* 7, No. 2. 109-124.

- Karp, Jeffrey A. 2006. "Political Knowledge about Electoral Rules: Comparing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s in Germany and New Zealand." *Electoral Studies* 25, No. 4. 714-730.
- Karp, Jeffrey A., Jack Vowles, Susan A. Banducci, and Todd Donovan. 2002. "Strategic Voting, Party Activity, and Candidate Effects: Testing Explanations for Split Voting in New Zealand's New Mixed System." *Electoral Studies* 21, No. 1. 1-22.
- Kohno, Masaru, 1997. "Voter Turnout and Strategic Ticket-Splitting under Japan's New Electoral Rules." *Asian Survey* 37, No. 5. 429-440.
- Massicotte, Louis, and André Blais. 1999. "Mixed Electoral Systems: A Conceptual and Empirical Survey." *Electoral Studies* 18, No. 3. 341-366.
- Park, Chan Wook. 2002. "Elections in Democratizing Korea." in Fuh-sheng Hsieh and David Newman, eds. *How Asia Votes*. New Jersey: Chatham House.
- _____. 2009. "Patterns of Split-ticket Voting in the 2008 Korean General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미국남부정치학회 발표논문(1월 7~10일).
- Reed, Steven R. 1999. "Strategic Voting in the 1996 Japanese General Ele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2, No. 2. 257-270.
- Riker, William H. 1982. *Liberalism Against Populis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the Theory of Social Choice*.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McAllister, Ian, Stephen White. 2000. "Split Ticket Voting in the 1995 Russian Duma Elections." *Electoral Studies* 19, No. 4. 563-576.
- Schoen, Harald. 1999. "Split-Ticket Voting in German Federal Elections, 1953~90: An Example of Sophisticated Balloting?" *Electoral Studies* 18, No. 4. 473-496.
- Shugart, Matthew Soberg, and Martin P. Wattenberg. 2001.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A Definition and Typology." Shugart and Wattenberg, eds.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The Best of Both Worlds?* 9-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Patterns of Split-ticket Voting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han Wook Park | Seoul National University

Ji Yeon H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voters were provided two ballots each under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one supporting a candidate in the single-member plurality district, and the other for choosing a party list under a nationwid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system. Using the data from two post-election surveys,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split-ticket voting in which the party of the district candidate chosen by a voter is not the same as the party supported for at-large PR. About 25 to 35 percent of the total voting participants engaged in split-ticket voting. The most frequent case of split-ticket voting was that of the GNP chosen for the single-seat district along with the Pro-Park Coalition for PR. The GNP/Pro-Park case of split-ticket voting resulted typically from strategic voting. Almost half of them split their vote in order to avoid wasting their votes, while another half of them made this choice for the purpose of insuring the legislative coalition of the GNP and Pro-Park. On the other hand, the UDP/GNP case could be seen as relevant to policy-balancing split-ticket voting. Most of these voters split their vote, because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emergence of extremely conservative legislature unchecked by any progressive party within the institution.

Keywords: split-ticket voting,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strategic voting, avoiding wasted vote, coalition insurance, policy-balancing split-ticket voting, the 18th general election